

綠翠錄

녹취록

17살을 맞이한 2019 환경재단의 푸른 발자취

녹취록은 푸를 녹綠, 푸를 취翠, 기록할 록錄으로
푸르고 푸른 발자취를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이 녹취록에는 한해 동안 환경재단이 열심히 달려온
모든 활동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

KOREA GREEN FOUNDATION

환경재단



綠 翠 錄

KOREA GREEN FOUNDATION

환경재단



환경재단은 2002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 전문 공익재단으로 문화적인 접근 방식과 전문성을 통해 환경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환경운동가와 시민·환경단체들을 도왔으며, 환경 전문성을 바탕으로 누구나 일상 속에서 환경문제를 가까이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습니다.

✦ 우리의 미션은

아시아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시민사회/정부/기업과 손잡고 기후·환경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아시아의 그린허브입니다.

✦ 우리의 비전은

2022년까지 100만 그린리더를 키우고,
1만의 그린리더(후원 회원)를 모으고,
환경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기업·기관과 함께 하겠습니다.

✦ 우리의 가치는

- I. 공부합니다.
- II. 현장을 찾아갑니다.
- III. 행동합니다.
- IV. 연대합니다.
- V. 함께 이룹니다.

환경재단은 투명합니다.

투명한 기금 운용을 위해 2006년부터 시민단체로는 처음으로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유료 외부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하게 공개되며 매년 지속가능보고서에 포함되어 보고됩니다.

함께 지키는 아시아, 아시아의 그린허브.

그린리더가 세상을 바꿉니다.

옥스포드 사전은 ‘기후 비상 Climate Emergency’을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습니다. 기후 변화 Climate Change, 기후 위기 Climate Crisis 같은 단어를 제친 까닭은 지금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적 피해를 피하기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38년간 줄기차게 한길로 걸었고 환경재단도 지난 17년간 기후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온실가스는 줄지 않고 슈퍼태풍, 산불, 폭염, 가뭄, 미세먼지, 해양오염 등 셀 수 없이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작년 10월 스웨덴의 16살 소녀 그레타 툰베리로부터 촉발된 기후파업은 전세계 123개국 140만명의 청소년들을 광장으로 뛰어나오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통해 정부가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온실가스 배출 제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해왔습니다.

지금 지구는 용량을 초과한 채 위태롭게 지탱되고 있습니다. 지구 용량의 한계 안에서 함께 번영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환경문제는 이제 경제문제이고 사회문제이고 정치, 외교, 문화 등 어느 한 장르에 매어 놓을 수 없는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한 나라도, 정부도, 기업도, 개인도 각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환경재단은 지난 17년간 그래왔듯이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손잡고 탄소사회에서 순환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2일

환경재단 이사장 최열

함께하는 사람들

명예이사장

이세중 부영그룹 회장 직무대행

이사장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감사

신경섭 삼정KPMG 부회장

안병덕 코오롱그룹 부회장

상임이사

이미경 환경재단 상임이사

이사

강명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

김문수 aSSIST 경영대학원 크립토 MBA 주임교수

김봉영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경영고문

김영철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대표이사

문국현 뉴패러다임인스티튜트 대표

박재갑 한국세포주연구재단 이사장

승효상 건축사무소 이로재 대표

신상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엄기영 국가기후환경회의 홍보위원장

유홍준 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좌교수

이선중 은덕문화원 (前)원장

이원준 롯데그룹 부회장

임현진 한국חק중양연구원 이사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조상호 나남출판사 대표이사 회장

제프리존스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최병오 패션그룹 형지 회장

최학래 전국재해구호협회 명예회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19 환경재단 주요 사업 돌아보기

3 월



- 13회 피스앤그린보트 출항
- 글로벌 에코캠퍼스 준비위원회 발족

5 월



- 15회 서울환경영화제 개최
- 유스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시작

9 월



- 커피박 재자원화 컨퍼런스 개최
- 7회 아시아환경포럼 개최

10 월



- 글로벌 에코캠퍼스 프로젝트 IV- 재레드 다이아몬드 신작 <대변동> 내한 강연회 개최
- 물과 사람 사진 공모전 개최
- 2030 에코리포트 NO 4. 발간

2월



• 미세먼지TV 개설



• 제 2호 미얀마 에코빌리지 프로젝트 시작

6월



- 어린이환경센터 창립 7주년 기념 환경콘서트 <여름아~ 학교 가자!> 개최
- 녹녹펀딩 런칭
- 글로벌 에코캠퍼스 프로젝트 I - <정경화 바이올리니스트 후원콘서트>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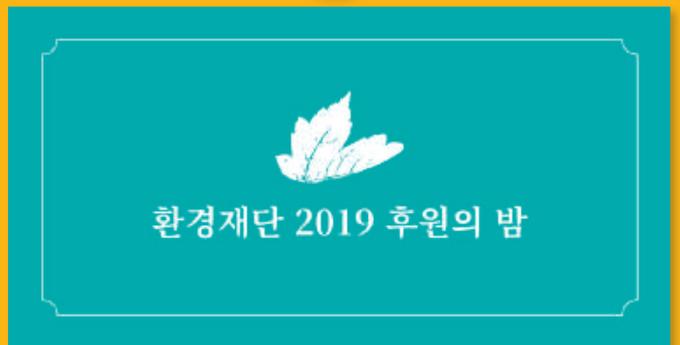
- 글로벌 에코캠퍼스 프로젝트 II - 금난새의 오페라이야기 <라 트라비아타>
- 글로벌 에코캠퍼스 프로젝트 III - I LOVE ECO 작가展

10월



- 2019 에코페스트 인 서울 개최
- 강동구 7개 학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지원

12월



- 2019 후원의밤 개최
- 14회 그린보트 출항

그린리더와 함께한 2019

{ 함께한 그린리더 }

101,007 명

올 한해 환경재단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그린리더분들을 만났습니다.
튼튼히 걸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린CSR센터 1,921 명

그린페스티벌센터 26,402 명

어린이환경센터 5,100 명

그린리더십센터 104 명

아시아환경센터 11,595 명

그린리더관리팀 3,486 명

글로벌에코캠퍼스 3,864 명

환경재단웹레터 48,186 명

{ SNS 노출 }

9,628,016 회

환경재단 SNS 채널을 통해 재단의
가장 빠른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재단 페이스북

* 1~10월 도달 기준

9,525,875 회

환경재단 블로그

* 1~11월 18일 조회수 기준

102,141 회

{ 언론노출 }

2,423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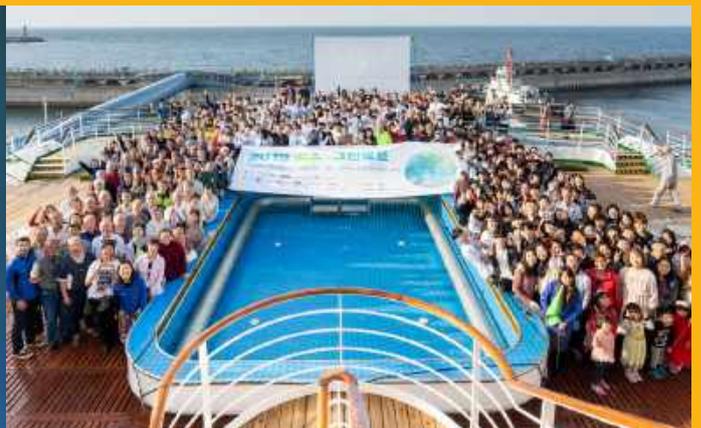
기획기사, MOU, 사업 전·후 보도 등
환경재단의 다양한 사업들이 언론에 노출되었습니다.

{ 축하해주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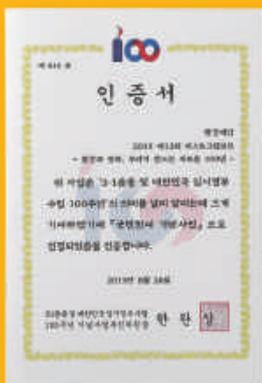
2019년 환경재단에는 축하할 소식이 많았습니다. 14살을 맞은 피스앤그린보트, 6살을 맞은 방글라데시 에코빌리지가 그동안의 활동들에 대한 공로를 국내외적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2019 프랑스 파리평화포럼 <피스앤그린보트> 초청

환경재단 피스앤그린보트 프로그램은 정부차원에서 풀기 힘든 한일 양국의 과거사를 민간 차원에서 여행이라는 문화적인 방식을 통해 접근할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파리평화포럼은 2018년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제안으로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을 기념해 전쟁의 아픔을 되새기고 영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전 세계가 협력하자는 취지로 창설된 국제회의입니다. 마이크로 소프트, 유엔 개발 계획(UNDP), 국제 노동기구(ILO), 글로벌 녹색 성장 연구소 (GGGI), 세계은행그룹, 세계야생동물기금(WWF), 경제 협력 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와 함께 한국에서는 환경재단 피스앤그린보트가 환경 분야에 공식 초청됐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국민참여 기념사업 <13회 피스앤그린보트> 선정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향해를 떠난 13회 피스앤그린보트가 그 공로를 인정받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위원회로부터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2020년 두바이 국제 국제개발 수행 프로그램 엑스포 <방글라데시 에코빌리지> Global Best Practive Programme 선정



환경재단의 방글라데시 에코빌리지가 47:1의 경쟁을 뚫고 총 1,175개 출품 프로그램 중 최종 25개 사례에 선정되어 2020년 국제개발 엑스포에 출품 확정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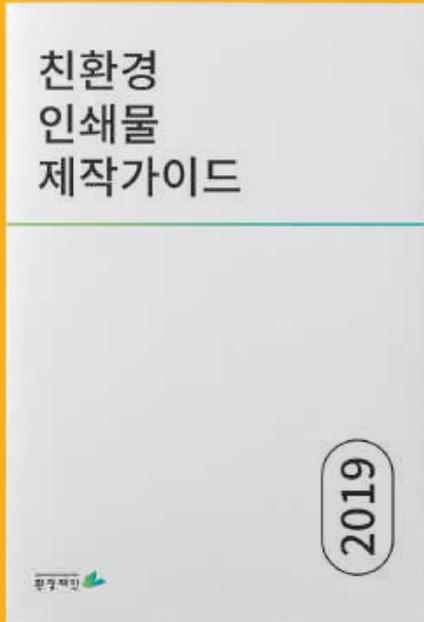
[출품일정]
2020년 두바이 국제 국제개발 수행 프로그램 엑스포 (작은 걸음, 큰 도약: 지속가능한 영향을 위한 솔루션 / Small steps, Big Leaps: Solutions for Sustainable Impact)
• 2020년 10월 20일 ~ 2021년 4월 10일
• 환경재단 방글라데시 에코빌리지 파트너 단체 BEDS는 두바이에 초청되어 사례발표 수행 및 관련 실적 전시 예정

{ 친환경 제작가이드 라인 }

2019년 환경재단은 재단의 활동이 미치는 환경 영향력을 더욱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 인쇄물/제작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준수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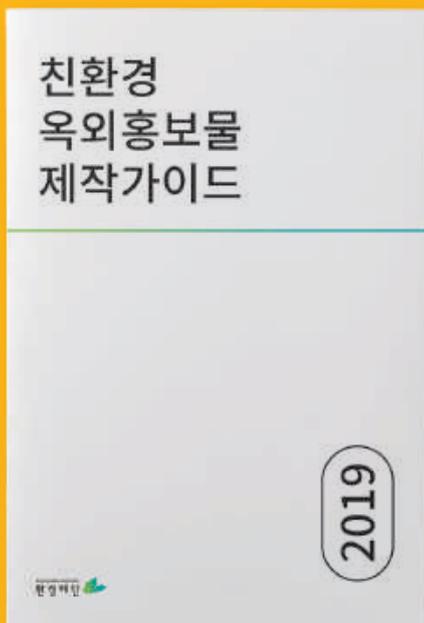


친환경 인쇄물 제작가이드

- ① 필요한 만큼만 제작합니다.
- ② 쪽수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중철 제본을 합니다.
- ③ 친환경 종이를 사용합니다.
- ④ 얇은 종이를 사용합니다.
- ⑤ 공기름 인쇄를 합니다.
- ⑥ 흑백 인쇄를 합니다.
- ⑦ 후가공을 하지 않습니다.
- ⑧ 표면코팅을 하지 않습니다.
- ⑨ 표준판형 사용으로 종이 유실분을 줄입니다.
- ⑩ 지나친 색상사용을 줄입니다.
- ⑪ 불필요한 디자인을 줄입니다.
- ⑫ 뒤표지에는 친환경 가이드 준수 사항을 기재합니다.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친환경 옥외홍보물 제작가이드

- ① 기존 현수막 원단을 <타이백*> 소재로 교체합니다
- ② 기존 X배너 소재를 <매쉬>소재로 교체합니다.
- ③ 만들어진 제작물은 <업사이클링>을 통해 재사용합니다.



* 타이백(Tyvek)은 세계적인 화학 기업 듀폰 사가 개발한 합성 고밀도 폴리에틸렌 섬유로 불에 타면 물과 이산화탄소만 남아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며 내구성과 방수성, 항균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다.

13회 피스앤그린보트

환경과 평화,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100년

2019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한·일 시민을 한 배에 태우고 임시정부가 설립되었던 중국 상하이와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 아픈 역사를 품고 있는 나가사키, 한국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일시 2019년 4월 9일(화)~4월 16일(화) / 7박8일
기항지 여수 ⇨ 상하이(중국) ⇨ 나가사키(일본) ⇨ 제주(한국) ⇨ 부산

14회 그린보트

에코 라이프 : 즐거운 불편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무시무시한 폭염 등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바쁜 삶에서 잠시 벗어나 지구와 환경을 생각하는 특별한 항해를 통해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그립니다.

일시 2019년 12월 7일(토)-12월 14일(토) / 7박8일
기항지 부산 ⇨ 기룡/타이베이(대만) ⇨ 제주(한국) ⇨ 부산

피스앤그린보트는 2005년 일본의 대표적 NGO인 Peace Boat와 환경재단이 아시아의 화합을 가로막는 역사 문제를 비롯해 동북아시아의 사회·문화·환경 등의 문제를 열린 시각으로 바라보며 대안을 찾기 위해 만들어졌다.

- * 2019 프랑스 파리평화포럼 초청
- * 2019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선정

 총 탑승인원
12,681 명

 총 항해 기간
138 일

 총 게스트 참여수
298 명





선내 프로그램

평소에는 쉽게 만날 수 없었던 명사들의 강연, 새로운 인연들과 함께 하는 교류 프로그램, 크루즈 여행이 더 즐거워지는 공연과 축제, 그리고 지구를 위한 환경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선상환경대담 <플라스틱 시대와 우리의 자세>

오늘날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중심으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관리 대책 시스템 모색.



선상토크쇼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100년>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동아시아 역사 문제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해결방안 모색.



피스그린 페스티벌

한일다과파티, 한복/유키타 체험버스, 한국 문학 소개 등 생생한 한일 문화 교류 시간.



사진: 윤주성

그린캠페인 '지구를 구하는 그린 챌린지' 즐겁고 불편하게 여행하기

2019 그린보트 기간 동안 주체적으로 환경을 생각하고, 에코라이프를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된 참여형 캠페인입니다. 여행에서 필요한 물품을 빌려쓰는 그린대여소와 7박8일 동안 다양한 환경미션을 실천해보는 그린미션, 직접 환경캠페인을 기획해보는 그린정모가 진행되었습니다.

- 그린챌린지 미션별 달성자: 총 361명 / 전체 참가자의 46%(옐로우 208명, 블루 128명, 그린 25명)
- 미션 달성별 리워드 제공: 옐로우(닥터노아 웨이브 대나무 칫솔, 플랑드비 올인원 삼푸바) / 블루(클린켄틴 보틀, 게스트 사인도서) / 그린(코요롱FnC 업사이클링 스윗셔츠)

기항지 프로그램

문화, 역사, 환경, 평화, 교류 등 다양한 주제가 있는 기항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일인 2019년 4월 11일에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방문하여 더욱 의미가 있었던 시간.



일본 나가사키

일본은 인정하고 있지 않는 강제징용의 현장 군함섬을 한·일이 같이 방문하여 숨겨진 역사의 진실에 대해 알기.



한국 제주도

제주올레를 만든 제주올레 서명숙 이사장과 함께 올레길을 걸으며 길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

함께한 주요 게스트

* 가나다 순



김용택
섬진강시인



김운성
소녀상 조각가



남궁인
응급의학 전문의/작가



박준
시인



은희경
소설가



유흥준
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좌교수



이상봉
디자이너



이슬아
작가/헤엄 출판사 대표



정다운
보틀팩토리 대표



정유정
소설가



조천호
대기과학자/연세대 대기과학과 박사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원 소장

역대 주요 게스트

* 가나다 순

간니닌니 유튜브크리에이터
강미선 이화여대 건축학과 교수
고건 (前)총리
김상헌 네이버 경영고문
김연수 작가
김영하 작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홍신 작가
노동영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홍철 방송인

노희영 YGFOODS 대표
문국현 한솔섬유 사장
박원순 서울시장
박재갑 한국세포주연구재단 이사장
변영주 영화감독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
서천석 행복한아이연구소 소장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
승효상 이로재 건축가
안치환 뮤지션
안혜란 MBC 라디오국 본부장

엄홍길 엄홍길휴먼재단 상임이사
오연호 오마이뉴스 사장
요조 뮤지션
유시춘 EBS 이사장
윤광준 사진작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이명세 영화감독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이상은 뮤지션
이한철 뮤지션
이호재 (후)효재 대표

임옥상 임옥상미술연구소 소장
장사익 음악인
정관용 시사평론가
정재승 카이스트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정지영 영화감독
조세현 희망프레임 이사장/ 사진작가
조진만 조진만아키텍츠 대표/건축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예코과학부 석좌교수
한비아 월드비전세계시민학교 교장
황석영 소설가

참가자 후기

“

어떤 책의 재미있는 부분, 기억할 만한 부분에 끼워 넣은 책갈피 같아요. 배 안에서는 평소에 외부로 향했던 복잡한 생각과 에너지가 나에게로 집중되죠. 여러 종류의 잡곡이 수북이 쌓여 있던 통을 흔들어서 밀도를 높이고 수평을 맞추듯, 물살을 헤쳐 나가는 배가 나를 흔들어 내 속의 잡념들에게 제자리를 찾아주는 느낌이 들어요.

은희경 | 소설가

“

내가 이전에 살던 일상의 세계와 여행 사이의 완벽한 단절. 그리고 완벽한 단절 이후 만나는 새로운 세계 같은 것. 그동안의 여행과는 다르다.

박준 | 시인

“

선내를 거닐다 보면 가벼운 기타선율에 거칠지만 따스한 목소리가 얹혀 들리고 그 따스한 소릴 따라 걷다 보면 푸른 바다, 시원한 파도가 구름처럼 일렁이는데 두 눈 가득 들어온다. 그러면 어느새 일본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작은 안부를 물으며 시작된 대화는 자연스럽게 독도, 원전사고, 탈핵에 관한 이야기로 흘러간다. 배의 일렁임은 마음도 생각도 쉽게 일렁이게 만드는 기폭제 역할을 해서 작은 이야기 불씨는 금새 커다란 모닥불을 만든다.

이소영 | 참가자

“

저는 늘 혼자서 여행을 했었어요. 그동안의 여행에서는 혼자서 생각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면, 그린보트의 여행은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사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생각들이 있다는 점이 다르면서도 흥미롭게 다가왔어요. 배 하나가 유기적인 사회 같았죠.

남궁인 | 응급의학 전문의, 작가



“

좋아하는 책의 밑줄 그은 문장 같았다. 남들이 영어 공부를 하니까 영어 공부를 했고 자격증을 따니까 자격증을 뒀다. 나만의 이유, 나만의 기준이 사라져갔다. 그러다 오론 배 위에서 나는 ‘동지’들을 만났다. 배 위에서 만난 당신의 고민이 내 고민이기도 했고, 내 고민이 당신의 고민이기도 했다. 답도 없고 끝도 없는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울기도, 웃기도 했던 일주일이었다.

안은진 | 참가자



- 13회 피스앤그린보트 후기가 궁금하다면 GREEN BOAT MAGAZINE VOL.1을 참고하세요! 피스앤그린보트에서 펼쳐진 다양하고도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담아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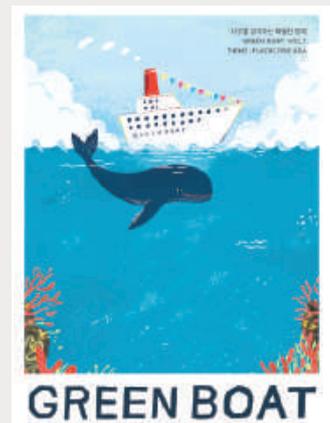
구매처: 알라딘, YES24, 반디앤루니스, 인터파크, 교보문고에서 ‘그린보트’ 검색

- SNS 팔로우하고 내년 향해 소식 기대해주세요.

홈페이지: www.greenboat.kr

페이스북: ‘그린보트’ 검색

인스타그램: ‘그린보트’ 검색



16회 서울환경영화제

ECO SPIRIT

2019 제16회 서울환경영화제는 ‘ECO SPIRIT’을 주제로 펼쳐졌습니다. ECO SPIRIT이란 ‘무엇을 쓰고, 입고, 먹을지’를 스스로 고민하고 선택하는 삶을 뜻합니다.

제16회 서울환경영화제는 관객에게 기후변화, 플라스틱, 먹거리, 생명 등 환경이슈를 다룬 영화를 소개하고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홍보대사로 이천희&전혜진 부부를 비롯, 김현성 오보이 편집장과 정다운 보틀팩토리 공동대표, 문승지 가구디자이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방식을 시도하며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5인을 선정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앞으로도 서울환경영화제는 대안적 삶을 제안하고 관객의 일상에 ECO SPIRIT이 깃들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서울환경영화제는 영화라는 문화 콘텐츠를 통해 환경문제를 쉽고 자기 문제로 느낄 수 있도록 개최해왔습니다. 현재 명실상부한 세계 3대 환경영화제이자 아시아 최고의 환경영화제, 국내 유일의 환경영화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7회 서울환경영화제 일정
2020년 6월 4일(목) ~6월 10일(수)



SEFF's SPECIAL GUEST



국제경쟁 심사위원장이자 마스터클래스의
주인공 오기카미 나오코 감독



청소년기후소송단
오연재 학생



4대강을 다룬
영화 <삼질> 제작진

NOTICE

서울환경영화제
홈페이지가 개편됐습니다.
영화제 소식을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eff.kr에
방문해주세요.



SEFF's ECOFRIENDS

서울환경영화제 홍보대사 에코프렌즈는 환경을 비롯한 사회 이슈에 관심이 있고 대중적인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은 대중문화계 인사가 선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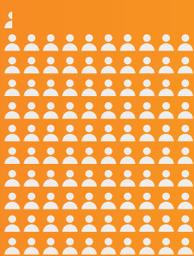
“We are all activists”

서울환경영화제가 오보이 매거진이 협업을 통해 캠페인 화보를 진행했습니다. 기후위기 아래 ‘모두가 활동가’라는 메시지를 던지기위해 에코프렌즈가 나섰습니다.

에코프렌즈는 시민들이 일상의 실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직접 캠페인 문구를 구상하고 또 피켓을 들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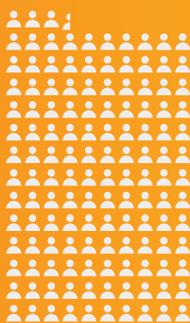
역대 참가 인원

10,041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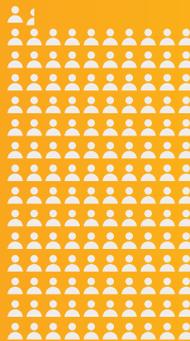
2016 년

13,379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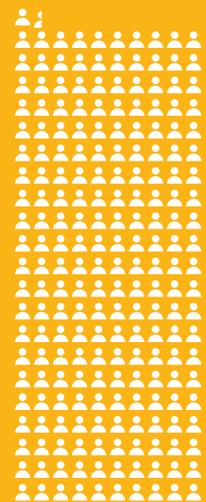
2017 년

14,175 명



2018 년

21,175 명



2019 년



총 상영 편수
11,762 편



총 참가국 수
114 개국

2019 에코페스트 인 서울

지구에서 제대로 노는 법!

환경재단은 11월 10일(일) 문화비축기지에서 지구에서 제대로 노는 법!을 주제로 <에코페스트 인 서울>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지속가능 가이드라인 <지구와 우리의 약속>을 만들고 준수했습니다. 제로웨이스트를 지향하는 에코페스트의 가치에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셔서 뜻 깊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재단은 문화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가 어우러져 많은 시민들이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페스티벌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환경재단과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7년부터 '미세먼지, GO! 리사이클링' 등 다양한 시민참여형 환경축제를 통해 리사이클링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19년에는 '지속가능성'을 키워드로 다양한 대안문화를 소개하는 에코페스트 인 서울을 개최했습니다.

숫자로 보는 2019 에코페스트 인 서울



총 쓰레기 발생량
69 Kg

종이22.91kg, 일반18.51kg,
음식물14.88kg, 플라스틱6.24kg,
비닐 6.03kg, 캔 0.54kg



다회용기 사용
2,549 개

도시락통 891개, 컵 678개,
수저 900개, 접시 60개,
쟁반 20개



기부받은 에코백&종이백
600 개



총 참가자수
5,000 명



지속가능 가이드라인 <지구와 우리의 약속>

에너지 과잉 사용, 일회용품 남용, 미흡한 분리배출, 채식선택권 박탈 등 기존 페스티벌에서 간과되어온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친환경 페스티벌 가이드라인인 <지구와 우리의 약속>을 제작했습니다. 환경재단은 에코페스트를 시작으로 국내에 지속가능한 페스티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세요!

[@ecofest.in.seoul](https://www.instagram.com/ecofest.in.seoul)

에너지편

- 자연광 사용, 전원 차단
- 전기 난방기대신 무릎담요

제작물편

- 제작물 최소화 온라인 안내
- FSC 인증 종이 사용
- 행사 종료 후 업사이클링 진행

폐기물편

- 철저한 분리배출 안내
- 자연친화적 재료 사용
- 리필 가능한 식수 공급

다회용편

- 참가자 다회용기 지참안내
- 다회용기/텀블러 대여 서비스
- 기증 받은 에코백/종이가방 자율포장대 운영

권리편

- 푸드 트럭 채식메뉴 준비
- 연령, 성별, 장애 등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즐기기

노동편

- 스태프 상호 존중
- 자원봉사자 휴게 시간/공간 보장

그린 아카이브

시민들에게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하고자 지역영화제 및 공동체에 열람·대여·상영회 개최를 지원했고, DVD 제작·보급을 진행했습니다.



그린아카이브는 매년 서울환경영화제 및 국내외에서 출품된 우수 환경 영상 콘텐츠 400편 이상의 상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환경영상 자원원입니다.

· 공그린아카이브 지역영화제 및 공동체상영 지원현황(2019년 9월 기준)

강남아이쿱, 고양미디어센터, 그린무비나잇, 광릉숲친구들, 대구사회복지영화제, 대구신세계백화점, 도봉환경교실, 부산반핵영화제,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숲과 나눔, 숲속작원도서관, 서천생태영화제, 세계자연기금, 시지마을공유공간 토크, 아모레퍼시픽, 어린이기후변화탐사대, 이화그린영상제, 재미탐구소, 제주밤바다영화제, 춘천아이쿱, 한국화학연구원, 환경교육센터, 한점-루프 포레스트 등

지원단체
36 곳

관람인원
2,535 명

2019년 추가 대여 작품 리스트



달콤한 플라스틱 제국



콩돼지의 맛



블루



귀한불능점

내추럴 뷰티크리에이터 2기

환경을 생각하는 새로운 뷰티크리에이터

<내추럴 뷰티크리에이터>는 1인 크리에이터가 새로운 직업으로 인정되고 영상콘텐츠의 사회적 영향력이 강화된 시대에 맞추어, 시민들이 영상콘텐츠를 통해 환경문제를 더욱 일상 가까이에서 느끼게 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2기의 사업을 운영, 환경을 생각하고, 친환경 행동 실천을 독려하는 66명의 '내추럴 뷰티크리에이터'를 양성했습니다.

지속적인 환경 주제 교육과 에코라이프를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 문제를 인식하며, 지속가능한 삶을 고민하고 사회에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크리에이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재단은 LG생활건강과 함께 유튜브를 기반으로 활동하며 건강한 아름다움을 가꾸고, 환경을 생각하는 에코라이프스타일을 실천할 새로운 뷰티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총 양성 인원
66명

· 1기 33명
· 2기 33명

· 프로그램 소개

- 크리에이터 교육: 환경을 생각하는 뷰티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한 다양한 교육 진행.
- 크리에이터 멘토링과 성장지원: 유명 뷰티크리에이터 3인이 내뷰크의 공식 멘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양성 교육기간 이후 매월 한 차례의 강연과 멘토링 진행.
- 다양한 활동과 미션 수행: 교육기간 종료 후 다양한 경험과 체험의 기회 제공



커피박 재자원화 프로젝트

커피박도 자원이다. 커피박의 쓸모를 찾아서.

1인당 커피 소비량 512잔, 커피박(커피찌꺼기) 배출 규모 약 13만 톤. 커피 한 잔을 내린 후, 커피콩의 약 98%는 쓰레기로 그냥 버려집니다.

환경재단은 재활용 가치가 높은 유기성 자원임에서 불구하고 활용도가 미비한 커피박의 쓸모를 찾기 위해 커피박 재자원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커피박 수거에서 재자원화까지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재자원화 기업 공모, 컨퍼런스, 시민 인식 제고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으며 2020년에는 인천시 중구, 미추홀구로 수거 지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2020년 2월 2차 커피박 업사이클링 지원 사업공모(예정)
- 2020년 6월 제2회 커피박 재자원화 컨퍼런스 개최(예정)

커피박 재자원화 프로세스

커피박 재자원화 과정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커피박 목재데크, 도로변 식생모듈, 생분해 일회용품, 포장 완충재, 커피박 도자컵 등등. 다양한 커피박 재자원화 파트너들과 함께 커피박의 쓸모 찾기는 계속됩니다!

환경재단과 현대제철, 한국생산성본부가 함께 진행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쓸모없이 버려졌던 커피박의 새로운 쓰임을 찾아 자원 선순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www.coffebak.kr



수거처 인천 3개구 커피전문점 **62** 개



수거 및 재자원화량 **2.8** 톤/월 평균

제1회 커피박 재자원화 컨퍼런스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환경부, 인천시, 현대제철, 한국생산성본부, 환경재단, 중구, 미추홀구 등 총 10개 기관



커피박 재자원화 프로젝트 1년 차 진행 성과 공유
커피박 업사이클링 지원사업 공모 4개 기업 사례 발표

제2회 환경단편영화 [숨:] 공모전

환경재단이 주관, 환경부가 주최한 제2회 환경단편영화 [숨:] 공모전은 환경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관객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영화 작품을 제작 지원했습니다. 최종 완성된 세 개의 작품은 각각 ‘플라스틱’, ‘주거’, ‘동물권’ 이슈를 다루고 있으며, 관객에게 관련 환경 문제를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총 출품작
122 편



총 관객수
200 명



총 상영 횟수 서울, 강릉, 세종
3 회

- 공모 당선작 3편 (122편 공모)
- 당선작 지원사항
 - 영화 제작비 편당 1000만원
 - 전문가 멘토링 3회 (황윤 감독, 정지우 감독, 김일권 시네마 달 PD)
 - 영화 상영회 개최 3회 (서울, 세종, 강릉)



대상

<쓰레기 덕후 소셜클럽> 유혜민 감독

2018년 4월, 중국이 전 세계의 쓰레기 수입을 거부하자 유일하게 기뻐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한 달 전기요금 790원, 세 달에 걸쳐 쓰레기 봉투 10L를 채우는 사람, 망원동 쓰레기덕후 금자였다. 금자는 한국 사회의 쓰레기 규제 강화를 꿈꾸며 강력한 규제가 있는 인도와 케냐로 여행을 떠나지만 그 곳에서 뜻밖의 광경을 마주한다. 귀국 후 망원시장에서 비닐 봉투를 줄이는 프로젝트로 고군분투하던 금자는 이내 비닐의 개수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우수상

<보퐁이> 한혜인 감독

헛것이 계속 보이는 아이가 몰래 햄스터를 키우다가 아빠에게 발각된다. 아빠의 명령에 햄스터를 잡아 원래의 가게에 가져다준다. 하지만 그날 밤, 여전히 햄스터가 보이는 아이, 겁에 질린다. 실제로 방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나와 아이를 잡아간다.



우수상

<덕산 식구 대피소> 신하연 감독

수인은 낡은 집을 버티고 있는 얇은 기둥이 무너질까 두렵다. 가족들에게 이사를 가거나, 기둥을 새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지만 무시를 당한다. 수인은 집을 지켜낼 수 있을까?

물과 사람 사진 공모전

올해 환경재단과 오비맥주는 지난해 <물과 사람 60초 영화제>에 이어 모든 생명을 공존하게 하는 물의 이야기를 담기 위해 <물과 사람 사진 공모전>을 10월 한 달간 개최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할리스커피도 동참하여 수상작으로 선정된 총 27작품이 할리스커피 일부 지점에 전시될 예정이며, 내년 물의 날(3월 22일)에는 서울메트로 미술관에 작품이 전시됩니다.

• 심사위원



윤광준
사진작가



이철재
에코큐레이터



김현성
오보이 매거진 편집장



총 출품작수
2,953개



대상 <생명의 근원>



환경재단 이사장상 <물과 인간의 공존>



오비맥주 대표상 <LIFE>



할리스커피 대표상 <갈증>

빗물 식수화 설비 지원 프로젝트

개발도상국에 맑은 식수를!

환경재단과 롯데백화점은 2014년부터 하노이, 호치민, 자카르타 등 물이 부족한 지역에 빗물을 활용하여 식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빗물이용시설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2019년 8월에는 급격한 상업화, 도시화로 식수 문제가 심각한 베트남 하노이의 남뚜리엠 지역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하였습니다.

서울대 빗물 연구 센터와 협력하여 상수도 시설이 미비하여 지하수 오염이 심한 개발도상국 내 식수 자립을 위한 빗물 식수화 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빗물이용시설
100 톤 (2019년 20톤)



총 사업수혜자 학생 및 인근주민
약 2,499 명 (2019년 약 500명)



2014년

베트남 하노이 탕와이현 쿠케 마을
총 20톤 빗물이용시설 지원 / 수자원 교육
약 650명 학생 및 인근 주민

2015년

베트남 호치민 겐저현 안 또이 동 교문
총 18톤 빗물이용시설 지원 / 수자원 교육
약 649명 학생 및 인근 주민



2016년

인도네시아 북자카르타구
총 42톤 빗물이용시설 지원 / 수자원 교육
약 700명 학생 및 인근주민



밤섬 생물다양성 사회공헌 사업

동물과 식물이 모두 행복한 밤섬 만들기!

2019년 한 해 동안 환경재단은 밤섬의 생물다양성을 되살리기 위해 파트너사 임직원들과 함께 밤섬 내 유해식물 제거를 위한 봉사활동 3회,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생물다양성 교육 7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외에도 대중인식 변화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밤섬 어린이 그림대회와 일반 시민대상의 사진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 1월에는 교육에 참여한 교사 및 전문가들을 초빙한 밤섬 생물다양성 워크숍 진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생물다양성과 동식물을 위해 도심 속 생태계 서식지를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지구에 대해, 자연에 대해 폭넓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늘 고민하겠습니다.

- 환경재단 밤섬 사업 허정혜 담당자

서울 도심 한복판의 람사르 습지인 밤섬과 밤섬의 주변 환경을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함으로써 아이들과 일반대중에게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밤섬 봉사활동
3 회



밤섬 생물다양성 교육
7 회



밤섬 생물다양성 이수자
138 명



밤섬 어린이 상상력 스케치
약 70 명



한강 사진전 공모 출품작
100 편 (27편 선정 및 시상)



저소득층 소아천식 어린이 지원사업

의료 취약계층을 돕는 나눔 문화 확산!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환경재단은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3차년도의 사업을 운영하며 전문가, 협력병원과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총 7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서울시 거주 소아천식 어린이 20명을 선발하여 완치자 4명을 제외한(1명은 개인사정으로 누락) 7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 하늘 아래에서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활동하겠습니다.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소아천식 환아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재단과 SK&E&S,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특별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이 함께 진행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총 누적 지원어린이수
78명



2019 지원어린이수
73명

• 프로그램 소개

- 치료지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는 소아천식 어린이의 증상 호전을 위한 치료지원
- 기본 생활환경개선: 완치에 필요한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측정기, 마스크 등과 같은 기본물품 제공
- 맞춤형 생활환경개선: 대상자 선정 후 각 개별가정의 환경성질환 유발 요인을 측정하여 각 가정에 적합한 솔루션 제공 ⇨ 어린이가 거주하는 가정 내 환경성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물질을 감소



친환경보일러 지원사업

이웃에 따뜻한 겨울을, 국민에게 맑은 공기를!

2019년도에 환경재단과 KB국민은행, 서울시는 어린이 및 어르신 이용시설 50개소 선정, 총 61대의 친환경보일러를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미세먼지 저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고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은 지난 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시설의 노후 보일러를 환경부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친환경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어르신·어린이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 해, 환경재단 덕분에 올 겨울 어린이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맑은 하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환경재단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 신수어린이집 원장



총 보일러 교체수
61 대



총 지원시설
49 개소 (어린이집 42개소, 어르신 이용시설 7개소)



총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량
연 19 톤 (친환경 보일러 61대 교체 기준)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량
연 192 Kg (친환경 보일러 61대 교체 기준)



유스 미디어 크리에이터

Go 환경보호, Stop 사회문제!
청소년의 미디어 액션이 세상을 바꾼다!

환경재단은 5월 26일부터 10월 27일까지 미래의 환경 전문가 육성을 위한 <유스 미디어 크리에이터>를 진행했습니다. 오픈 특강부터 공모전을 시작으로 영상 아카데미, 시상식까지 진행하며 총 27명의 환경 유스 미디어 크리에이터를 양성했습니다.



총 육성인원
27명



총 공모제작지원작
8편



총 제작지원비
1,600만원

제작지원작 지원사항

- 제작비 편당 200만원
- 전문가 강의 4회
- 멘토링 팀별 3회

제작지원작 시상

- 최우수1편(600만원)
- 우수상3편(편당 400만원)
- 상영회 및 시상식 1회(총 1800만원 시상)

친환경 오피스 만들기 프로젝트

종이컵 대신 유리머그잔

환경재단과 스타벅스가 사무실 내 종이컵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컵 사용을 권장하고자 ‘친환경 오피스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친환경 오피스 캠페인에 동참을 원하는 조직 3,714 곳의 신청을 받았으며, 그 중 80곳을 선정해 유리머그잔을 제공했습니다. 참여 조직은 종이컵대신 유리머그잔으로 교체한 장면을 인증하며 친환경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재단은 사무실을 비롯 다양한 공간에서 다회용품 사용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 지원 유리잔 온-오프라인 합산
20,00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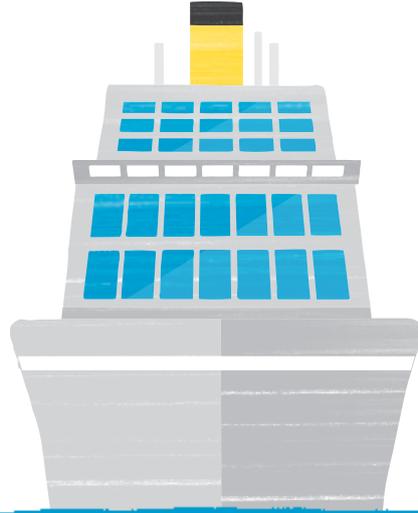


총 지원 조직
80곳



화재진압 및 각종출동으로
워낙 물을 많이 써서
물을 항상 달고 사는데
유리머그컵을 선물해주신
환경재단과 스타벅스 덕분에
구조대분들 하나씩 다
나눠드렸다.
이제 종이컵 안 써도 되겠다.

-광주 소방서



지구를 생각하는 특별한 항해

그린보트

검색창에 **그린보트** | Q 를 검색해보세요!



기념 사업 선정 및 국제 행사 초청 이력

- 광복 60주년 기념 사업 선정 (2005년)
- 광복 70주년 기념 사업 선정 (2015년)
-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사업 (2019년)
- 프랑스 파리 평화 포럼 초청 (2019년)

GREEN BOAT는 지구를 생각하는 특별한 항해를 떠납니다. 이 항해를 통해 더 아름다운 지구를 상상하고 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리고자 합니다. 환경을 주제로 한 세계 유일의 테마 크루즈, 그린보트의 항해에 함께해주세요.

에코빌리지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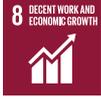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마을은? 바로 '에코빌리지' 입니다!

2006년부터 청정한 그린 아시아를 만들기 위해 아시아환경센터는 개발도상국의 환경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움직임은 다른 마을, 도시, 국가로 퍼져 나가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 에코빌리지 활동 내용

- 중앙보급 상하수도가 없는 지역에 깨끗한 식수 조달
- 국가전력망이 닿지 않는 지역에 안전한 태양광에너지 공급
-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환경교육
- 엄마와 아이의 호흡기 안전을 책임지는 콕스토브
- 쾌적한 환경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식목활동

UN SDGs 달성 목표 항목

 <p>깨끗한 물</p>	 <p>지속가능한 에너지</p>	 <p>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p>
 <p>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조성</p>	 <p>기후변화 대응</p>	 <p>지속가능한 산림관리</p>



지원국가
16 개국



총수혜자
7,291 명



태양광지원
2,400 개



식목수
65,000 그루



빗물식수지원
12,077 톤

제 1호, 방글라데시 에코빌리지

지속가능한 친환경마을의 시작점, 세계로 뻗어나가는 에코빌리지!

2015년부터 방글라데시 바니산타유니온 주민들 및 현지 단체와 함께 만든 1호 에코빌리지에서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에코빌리지는 그린하우징, 그린에듀케이션, 그린비즈니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립가능한 친환경 마을을 만들어 갑니다.

* 2020 두바이 엑스포
Global Best Practice Programme
선정



우리가 함께 해온 에코빌리지

환경재단은 에코빌리지 사업을 통해 아시아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지속가능한개발과 환경의 소중함을 전해주었습니다.

빗물식수시설, 맹그로브식목, 쿡스토브제공, 태양광제공

학교 및 주민 대상 환경교육

에코투어 프로그램개발



그린하우징

그린에듀케이션

그린비즈니스

우리가 함께 할 에코빌리지

올해도, 그리고 내년에도 에코빌리지를 위한 환경재단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에코빌리지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기후변화주택설계, 마을식목행사

기후변화행동 참여

지속가능위원회설립, 친환경비즈니스교육

제 2호, 미얀마 에코빌리지

미얀마에 지속가능한 친환경마을을 조성하다!

환경재단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가 함께하는 ‘민관협력 사업’으로, 미얀마 산(Shan)주 내 3개 마을(짜웅넛, 예짚콩, 와찌마웅)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깨끗한 식수/생활용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수자원 보급 사업, 개간으로 인해 황폐화 된 토양의 지력을 회복하는 식목활동,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교육받고 회의할 공간 마련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건축 등 환경재단은 마을 주민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이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환경재단 제 2호 에코빌리지는 KOICA와 파트너십을 맺고 2019년 2월 25일 착수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에코빌리지

해외 지원사업에 있어 수원국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얀마 에코빌리지의 주민들은 마을 지속가능위원회를 조직하여 사업을 통해 마련된 인프라를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지속 가능하게 활용할 방법을 모색합니다.



함께 가꿔가는 푸르른 우리 마을

사업지역 마을은 생강 밭을 일구기 위한 개간과 벌목으로 인해 마을 곳곳이 민숭하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환경재단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식목 활동을 진행하여 세 마을이 다시금 초록빛 생기를 되찾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에코빌리지, 주민들의 희망을 지어요

미얀마 에코빌리지 각 마을마다 친환경 건축자재를 활용한 커뮤니티센터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마을의 공동사업, 도서관, 문화 활동 장소, 마을 지속가능위원회 회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에코빌리지 프로젝트

아시아 환경을 살리는 지혜, 마을에 있습니다.



환경재단의 에코빌리지 사업을 통해 탄소배출을 절감하고
기후변화로부터 마을을 보호하여
아시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기업은행 02-2011-4300
(예금주 환경재단)

후원문의 02-2011-4351(아시아환경센터)

7회 아시아환경포럼

지자체, NGO, 전문가가 함께한 제7회 아시아환경포럼

9월 19일(목)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동아시아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청정대기 호흡공동체를 주제로 한 <2019 청정대기 국제포럼 : 제7회 아시아 환경포럼>을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 했습니다.

올해에는 경기도청과 한국에너지기후환경협의회가 협력하여 정책, 기술, 학술 등 다양한 방면의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스위스 유럽유엔경제위원회 마르코 케이너(Maroco Keiner) 국장, 미국 나사 랭글리연구센터 알리 오마(Ali H. Omar) 국장, 한국 아주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김순태 교수 등 국내외 정부·시민사회로 구성된 총 12개국 500여명의 정책담당자들과 환경운동가들이 한 뜻을 모은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그린아시아환경포럼은 2012년 5월 한국 환경운동 30주년을 맞아 환경재단이 개최한 국제 심포지엄입니다. 2019년부터 그린아시아포럼이 <아시아환경포럼>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누적 참가 인원 **1,809**명
-  총 참가국 **12** 개국
-  총 참가 연사 **23** 명



참석 대표 연사 리스트

UNEP 아태지역본부 이자벨 루이스 부분부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23명 연사 참석



이자벨 루이스
미국
前) 유엔 환경계획(UNEP)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부소장



마르코 케이너
발제
前)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환경부 국장



알리H. 오마
발제
前) NASA 랭글리 연구센터 국장



박혜숙
일본
前) 미에대학교 교수



코롤마 감보슈렌
몽골
前) 환경관광부
청정기술 담당 국장



우징
중국
前) 화동전력대학
환경과학전공 부교수

세션 소개

국내·외 대기질 개선 성공사례를 통한 동아시아권 대기관리정책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각국의
국내배출원 해결방안



월경성 장거리에 의한 미세먼지
배출원 해결방안



세계 각국 시민들의 대기오염 운동

미세먼지센터

우리가 만드는 맑은 하늘

올해 미세먼지센터는 국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회의원, 전문가, 시민이 한 자리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또한 기업과 함께 환경 캠페인을 기획하여 실내 미세먼지 관리법 영상 제작, 나무심기 캠페인 등을 진행하여 기업이 환경문제해결에 더욱 앞장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올해 2월부터는 시민들에게 미세먼지와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 ‘미세먼지TV’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재단은 지난 30년간 해결되지 않은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8년 2월 27일 미세먼지센터를 창립했습니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맑은 하늘’과 ‘숨 쉴 권리’를 찾아 주기 위해 기업, 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정확히 알고, 적절히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언론보도
771 건



미세먼지 안심발자국 설치
7 곳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7 개



미세먼지방지를 위한나무 식목
12,000 그루



기업, 학계MOU체결
5 건

2019년 미세먼지센터 활동 소개

2월



- 유튜브 채널 '미세먼지TV' 개설
- 미세먼지 전문가 인터뷰 콘텐츠 제작

3월



- 미세먼지 심한 날 민간차량 2부제, 임시휴교 여론조사 실시

4월



- 팟캐스트 <이박사와 이작가의 이이제이>와 미세먼지 특집 제작

5월



- 여수산단 미세먼지 배출조작 항의 및 산업체 미세먼지 배출조작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 5.3 네스프레소 나무심기 캠페인

6월



- 미세먼지센터 홍보대사 <이파나언파나>와 미세먼지 캠페인송 제작

7월



- 실내 미세먼지 관리법 캠페인 영상 제작

8월



- 미세먼지를 소재로 한 웹드라마 제작

9월



- 후쿠시마 원전수 해상방출 대책 국회 토론회 개최 및 9월 21일 기후위기 비상행동 참여
- 9.18-20 동아시아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최
- 9.24 국민은행과 나무심기 캠페인

10월



-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정책제안 추진에 대한 국회 토론회 개최

11월



- 강동구 7개 학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지원

미세먼지TV 개설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는 미세먼지 전문 채널

올해 2월에 개설한 미세먼지TV는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는 최초의 '미세먼지 전문채널'입니다. 미세먼지 이슈에 관한 최신 트렌드와 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정보는 물론,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청소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트콤, 뮤직비디오 등과 같은 다양한 장르를 포함합니다. 앞으로도 환경영화리뷰, 전문가 인터뷰 등 다양한 기획 시리즈를 통해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콘텐츠를 누구나 친근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2019년 2월 27일에 개설된 미세먼지 TV는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대기오염 문제를 창의적인 콘텐츠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채널입니다.

누적 콘텐츠수
44 개

누적 조회수
4,000 회

누적 시청 시간
11,000 분

우리가 만드는 맑은 하늘
미세먼지 TV

최신 트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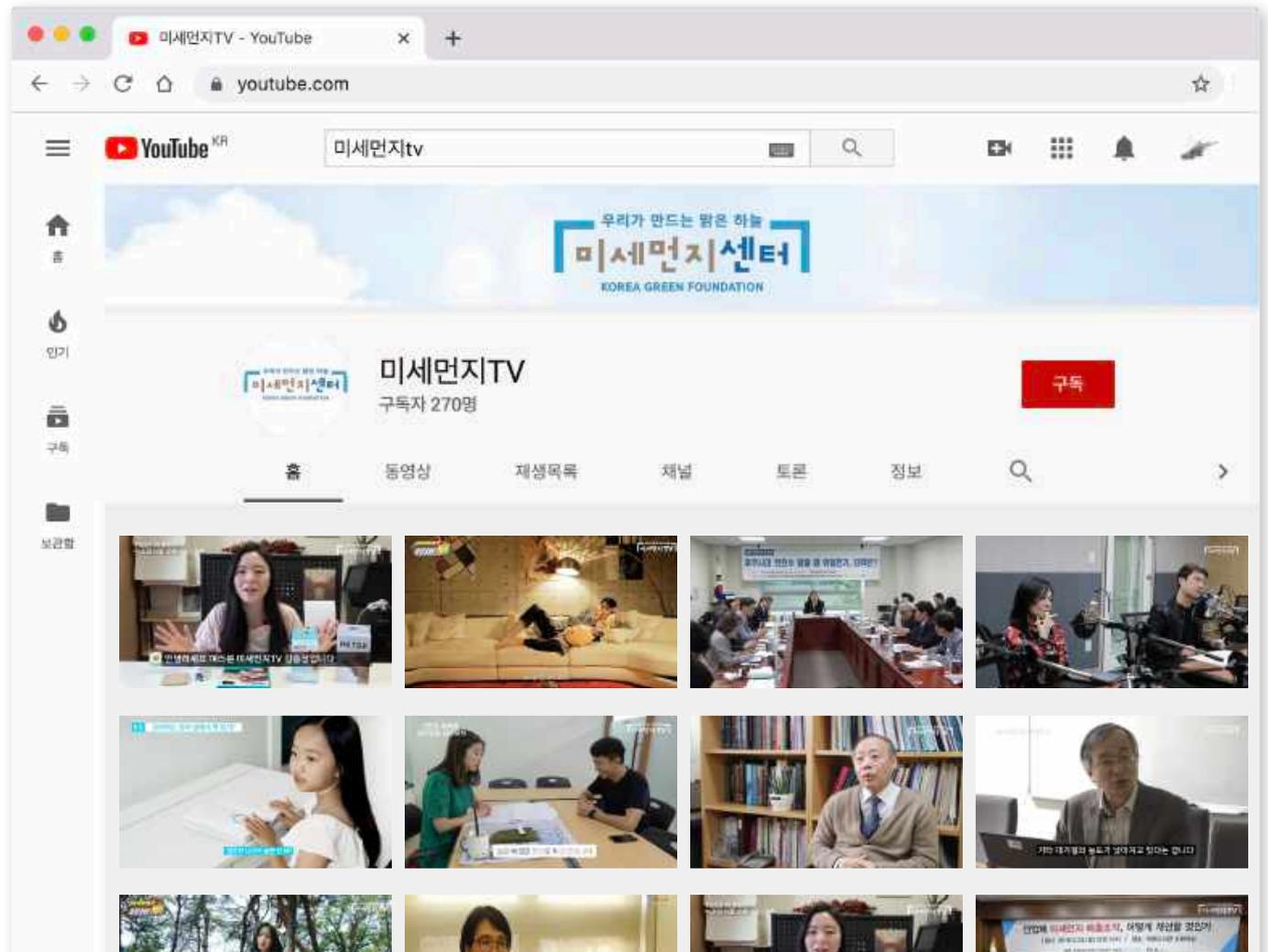
환경영화리뷰

국회토론회

전문가
인터뷰

정책

시트콤/
뮤직비디오





머지않아 공기를 사 마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과 환경보호를 위한 행동이 절실한 때입니다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보호 액션이 무엇일까요?

4차 산업혁명 리더십 과정

4차 산업혁명 파고에서 대한민국과 지구의 미래를 모색하자

2017년부터 총 327명의 기업, 정부, 학자, 예술가, 시민사회 등 각계 리더들이 참여했으며 원우회를 통해 오피니언 리더 네트워크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 현장연수를 포함하여 10주 동안 최고 전문가의 강연과 참가자들의 열띤 토론으로 급변하는 미래를 이해하고 대비합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의 다채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난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환경재단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갈 리더를 양성하는 <4차 산업혁명 리더십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수료인원
327명

· 1기 58명 / 2기 53명 /
3기 56명 / 4기 56명 /
5기 54명 / 6기 50명

• 국내 현장연수

- 현대자동차 기술연구소
- 삼성 SDS
- SKT T.um
- KT과천관제센터

• 해외 현장연수

- 텐센트
- 센스타임
- BYD
- DJI



‘왜 환경재단이 이런 과정을 운영하지?’라는 의문이 드신다면 일단 과정에 참가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재단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과정을 운영하는구나!’하고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화살이 아니라, 총알처럼 지나가는 요즘 의 세상 흐름에 대해서 무언가 묻고 싶고 무언가 알고 싶다면, 제가 볼 때 가장 적합한 과정입니다.



강승하 롯데멤버스 대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광속의 변화에는 교육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인재상을 필요로 합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본 리더십과정은 사람다운 사람을 육성하는 저에게는 미래를 깨우쳐주는, 가치 있는 배움의 기회였습니다.



김종량 한양대학교 이사장

진행중인 4차 산업혁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상상보다 훨씬 더 충격적으로 변해 가리라 봅니다. 이에 대비하고 함께 고민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지혜롭게 나아갈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리더십과정’ 동문으로서 함께 고민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장서자”는 김대중 대통령의 비전이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세계 곳곳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프리카 개도국에서는 모바일 결제가 화폐를 대신하고, 블록체인으로 공적원조 자금을 결제 하자는 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리더십과정’을 통해 혁명적 변화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경 코이카 이사장

4차 산업혁명 리더십과정 7기 모집 안내

기간 2020년 3월 3일(화) ~ 5월 19일(화)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 9시 30분
장소 더 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서울 중구 소공로 119)

모집정원 60명
수업방식 강의·경영 사례와 최신저널 소개 및 토론(만찬포함)
1회 국내 현장 연수, 1회 해외 연수 포함



지원자격

- Industry 4.0 시대의 뉴비즈니스를 찾는 경영자
- 시대에 걸맞는 정책입안 공직자
- 기후변화 등 다양한 사회적 과제에 새로운 해법을 찾는 시민사회단체 대표
- 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가치를 정립하고 공론화하려는 언론
- 기타 전환기에 미래를 내다보아야 할 분야라면 누구나!

접수마감 2020년 2월 25일(화) 까지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4th@greenfund.org)로 제출
제출서류 신청서 및 반명함판 사진
문의 4차 산업혁명 리더십과정 사무국
메일: 4th@greenfund.org
전화: 02-2011-4369, 4333

어린이환경센터

어린이환경센터는 올해 활동한 2,147명의 그린리더와 함께 대구, 인천 등 국내의 습지 방문으로 우리가 보호해야 할 자연환경을 학습하고 정화하는 체험활동을 하였으며, 중요한 환경 이슈와 정보를 학습하는 학교방문교육 및 물과 기후위기 환경문제를 몸소 익히고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캠페인과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환경센터의 다채로운 활동 지원으로 어린이 그린리더가 일상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목소리를 내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 비전: 건강한 환경에서 자란 행복한 어린이
- 미션: 어린이가 생명을 존중하고, 이웃을 배려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기후/환경문제 해결에 주체가 되게 한다.

어린이환경센터를 통해 성장한 어린이 그린리더 단위: 명



환경재단 어린이환경센터는 아동청소년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 UN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와 함께합니다.



올해의 어린이 그린리더를 만난 활동들!



캠페인
308 명



현장체험
190 명



환경교육
1,184 명



환경캠프
205 명



환경지원
260 명

어린이환경센터 창립 7주년 기념 환경콘서트 캠페인 “여름아~ 학교 가자!”

어린이환경센터는 창립 7주년을 맞아 MBC FM4U와 함께 ‘기후변화’를 주제로 환경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MC 정지영과 김용택 시인, 남궁인, 스위트로우 등이 출현하여 <오늘 아침 정지영입니다> 지구의 날 특집방송으로 방송되었습니다. 300명의 그린리더가 함께 현장을 빛내 주었습니다.



어린이 기후변화 탐사대 현장체험

8월 30명의 어린이 탐사대원을 선발하여 2박3일간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그레타 툰베리에게 영감을 받아 “글로벌 기후위기를 주제”로 활동했고, 어린이, 청소년 참가자들이 직접 글로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노력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어린이 기후변화 학교 환경교육

2009년부터 진행된 어린이 기후변화학교는 학교방문형 교육과 전체 현장교육이 합쳐진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기후변화와 에너지”를 주제로 학교 방문 교육이 진행된 후, 전체 체험학습이 진행됩니다. 2019년에는 파주, 오산, 시흥 등 수도권 12개 학급에서 300명이 참여했습니다.



어린이 그린리더십과정 환경교육

2011년부터 글로벌 코카콜라 재단과 함께한 어린이 그린리더십과정은 매년 160여명의 어린이 그린리더와 함께 4차례의 국내 습지를 방문합니다. 전국 람사르 등록 습지 또는 숨은 습지를 발견하여 물의 소중함과 습지 생태계의 소중함을 깨닫고 일상 속 환경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위한 습지”라는 주제로 인천 영종도, 세종 장남평야, 대구 달성습지 등 국내 대도시 습지를 방문하였습니다. 11월에는 8명의 우수그린리더와 함께한 대만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어린이 그린리더십과정 10년

 총 참가학생 **1,479**명

 총 국내 방문 습지 **36** 곳

 총 해외 방문 습지 **10** 곳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으니
더, 더 좋은 그린리더로
성장하겠습니다!

2019 우수그린리더
대만 해외연수
김태은 참가자 후기

- 2012년 홍콩 마이포 습지
- 2013년 일본 타이 습지
- 2014년 싱가포르 순게이블로우 습지
- 2015년 대만 관두 습지공원
- 2016년 홍콩 마이포 습지
- 2017년 말레이시아 순게이블로우 습지
셀랑고르 자연공원
- 2018년 일본 사카타 습지
오오누마 국정공원
- 2019년 대만 관두 습지공원



환경재단 어린이환경센터와 함께해주세요

건강한 환경에서 자란 행복한 어린이

환경문제를 더 가까이에서 접하고 환경에 대한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어릴 때부터 그리고 생활 속에서 환경문제를 만나는 것입니다.
환경재단은 우리나라 최고의 어린이 환경 전문 기관 <어린이환경센터>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의 그린리더를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 환경재단의 파트너가 되어주십시오.

후원문의 02-2011-4321

후원계좌 기업은행 02-2011-4300 (예금주 환경재단)

사업문의 02-2011-4345, 364



환경재단 후원자 ‘그린리더’ 와의 만남!

올해는 ‘글로벌 에코캠퍼스’ 건립 취지를 대중에게 알리고 참여를 요청하기 위해 더 많은 후원자들을 만났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후원 문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모금방법 연구 및 후원자 친화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후원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2019년 후원자와의 만남!

- 제16회 서울환경영화제: 친환경 굿즈 펀딩 오픈
- 녹록펀딩 런칭: 국내 최초 환경 전문 펀딩 사이트
- Everyday 식목데이: 후원자 나무심기 봉사활동
- 글로벌 에코캠퍼스 건립을 위한 후원자들과의 만남
-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후원콘서트 / 금난새의 오페라 이야기 <라 트라비아타> / <I Love Eco> 작가전 / 재레드 다이아몬드 강연회
- 2019 에코페스트인서울 - 환경캠페인 <나의 GREEN 테스트>

그린리더관리팀은 환경재단과 후원자들의 연결고리입니다. 직접 후원자들을 만나 함께 환경 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환경재단의 다양한 활동을 알리며 환경재단과 함께 할 든든한 후원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후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누적 정기후원자
3,486명



녹록펀딩 런칭

푸를 녹 ‘綠’, 노크하다 ‘KNOCK’의 의미를 가진 녹록펀딩은 최초의 환경 전문 펀딩 사이트입니다. 기후변화, 미세먼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부터 동물권 까지, 우리를 둘러싼 환경 문제를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하고자 합니다.

www.greengreen.kr



환경재단의 든든한 후원자 그린리더가 되어주세요!

환경재단은 환경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과 문화 그리고 연대를 통해
각계각층의 그린리더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과 환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그린리더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그린리더 양성에 함께해주세요.
함께하는 여러분이 바로 그린리더입니다.

그린리더가 되는 방법

온라인 후원하기



환경재단 홈페이지
www.greenfund.org

계좌로 후원하기



IBK기업은행
계좌 | 02-2011-4300
예금주 | 환경재단

전화로 후원 신청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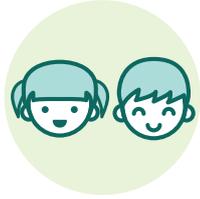


그린리더관리팀
02-2011-4339

그린리더께 드리는 혜택



그린보트 탑승 할인



어린이환경센터
프로그램 선발 시
가산점 부여



서울환경영화제
티켓교환권 선착순 제공



환경재단 다양한
문화행사 초대

글로벌 에코캠퍼스 건립 추진

희망이 있는 환경운동의 중심

환경문제는 정부, 기업, 개인 각자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할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환경재단은 2019년 4월 22일 지구의 날 기후환경문제를 함께 해결할 중심으로 글로벌 에코캠퍼스 건립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30만장의 벽돌로 지어질 글로벌 에코캠퍼스 건립을 위한 벽돌기금 모금과 문화예술 프로젝트에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2020년에도 문화예술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며, 글로벌 에코캠퍼스의 활동을 함께할 기업, 전문가, 시민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목적
 - 국내외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에코리더 육성
 - 지구용량 한계안에서 함께 번영하는 순환사회로 도약
- 목표
 - 기후환경 민간 싱크탱크
 - 인재육성기관
 - 기후위기 대응 액트탱크
- 활동영역
 - 교육, 문화, 연구, 캠페인, 엑셀러레이팅, 포럼

글로벌 에코캠퍼스는 지구차원의 문제를 정확히 알리고, 문제해결에 책임감을 갖는 인재들을 길러내고, 그들이 모이고, 연대하여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내는 장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에코캠퍼스에서는 교육, 문화, 연구, 캠페인, 엑셀러레이팅, 포럼 등의 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벽돌기금 후원 기업/기관
37 개



벽돌기금 후원 개인
245 명



글로벌 에코캠퍼스 프로젝트
I~V 참석 인원
3,864 명



- 위치: 서울시 종로구 누하동 243-6
- 대지면적: 1,164m² (352평)
- 건물면적
빌딩 2,000m² (608평, 지상3/지하2층)
한옥 224m² (67평, 지상1/지하1층)

2019년 글로벌 에코캠퍼스 활동 소개



글로벌 에코캠퍼스 준비위원회 발족식

2019. 4. 22 지구의날, 에코캠퍼스 부지

글로벌 에코캠퍼스 설립을 위한 300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33인의 준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준비위원회를 바탕으로 추진위원회 조직, 모금, 운영, 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에코캠퍼스 프로젝트 I



300인 추진위원회 발족 기념 정경화 바이올리니스트 후원콘서트

2019.6.5 JCC 아트센터

“음악가에게 불협화음은 건디기 힘든 것처럼 자연의 불협화음도 참을 수 없는 괴로움입니다. 글로벌 에코캠퍼스가 심는 곳, 기르는 곳, 제대로 매달리는 곳. 그래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곳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 정경화 바이올리니스트

글로벌 에코캠퍼스 프로젝트 II



금난새의 오페라이야기 <라 트라비아타>

2019.8.11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시민들이 후원해주시는 벽돌을 하나, 하나 모아서 캠퍼스를 설립할 예정이니 기후문제를 해결할 글로벌 에코캠퍼스를 위해 여기 오신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면 좋겠습니다.”

- 금난새 지휘자

글로벌 에코캠퍼스 프로젝트 III



I LOVE ECO 작가展

2019.8.21-26 인사아트센터

“환경재단이 좋은 일에 쓸 기금을 마련하는 전시라 많은 작가들이 호응해주었습니다. 저는 부여문화원에서 열리는 유물전을 위해 모든 작품을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취지에 동참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유홍준 I LOVE ECO 작가展 공동위원장

글로벌 에코캠퍼스 프로젝트 IV



재레드 다이아몬드 신작 <대변동> 내한 강연회

2019.10.31 더플라자호텔

“기후변화 문제는 전 세계적 위기 중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러나 지구촌이 해왔던 성과를 보면 기후변화 위기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오존층을 파괴하는 염화불화탄소 사용을 규제하는 합의를 마련했으며 바다 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유조선용 이중선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 역시 전세계의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레드 다이아몬드 <대변동>, <총,균,쇠> 저자

글로벌 에코캠퍼스는 37개의 기업·기관과 245명의 개인후원자와 함께 짓고 있습니다.

“

30년의 교직생활, 학생들과 함께 평화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해왔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없이 폭염을 이겨내며 일상 속의 작은 실천을 위해 노력합니다. 시민들의 붉은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 만들어지는 글로벌 에코캠퍼스에도, 저의 작은 실천이 보탬이 될 수 있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 장명숙 후원자



“

도시 환경에 문제를 느껴 시골로 왔는데, 이곳마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었어요. 기후재난에서 피할 수 있는 피난처는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글로벌 에코캠퍼스에 작은 힘을 보탬니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교육의 장, 연대의 장, 희망의 쉼터가 되어주세요.

- 박상언 가족 후원자



글로벌 에코캠퍼스 준비위원회

* 가나다 순

강미선 이화여대 건축학과 교수
강신장 모네상스 대표
강태선 블랙야크 회장
고현숙 국민대학교 교수
김문수 ASSIST경영대학원 교수
김상현 네이버 고문
김용택 시인
김종량 한양대학교 이사장

김준목 (사)혁신경제 이사장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
김홍신 소설가
노동영 서울대학교 부총장
문국현 뉴패러다임인스티튜트 회장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
승효상 이로재 대표
안강 안강병원 원장

안병덕 코오롱그룹 부회장
안성기 신영군예술문화재단 이사장, 배우
유홍준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
이상봉 흥익대 패션대학원장
임옥상 화가
장미희 명지전문대 교수, 배우
장사익 음악인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조동성 인천대학교 총장
조유미 퍼블리시스원코리아 대표
최병오 패션그룹 형지 회장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최혁용 대한한약협회 회장
한비아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교장

글로벌 에코캠퍼스 고문단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세계적 생태환경운동가
<오래된 미래> 저자

김상하 삼양그룹 그룹회장
김재옥 사단법인 E-컨슈머 회장
이세중 부영그룹 회장 직무대행
이수성 前 국무총리

글로벌 에코캠퍼스가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 건립을 위한 다양한 행사 소식, 후원자이야기, Q&A, 건물소개 등 다양한 소식이 업데이트 되고 있으며, 벽돌 후원도 쉽고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ecocampus.kr

인간이 자연을 살리면
자연이 인간을 살린다

희망이 있는 환경운동의 중심 글로벌 에코캠퍼스

매년 미세먼지로 700만명 사망
30도를 넘는 알래스카, 죽은 바다표범 60마리 발견
플라스틱 쓰레기로 신음하는 해양생물들

환경문제는 더 이상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전 지구 차원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구 차원의 문제를 정확히 알리고
문제 해결에 책임감을 갖는 인재를 길러내고
그들이 모여 연대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곳
글로벌 에코캠퍼스를 여러분과 함께 세우고 싶습니다.

글로벌 에코캠퍼스는 가장 오래된 건축 자재인
붉은 벽돌로 지어집니다.
붉은 벽돌 후원에 동참해 주세요.

에코캠퍼스 벽돌 기부 방법

온라인 기부

<http://ecocampus.kr>



계좌 기부

후원계좌(예금주 환경재단)

기업은행 02-2011-4300

국민은행 813037-04-000372

신한은행 140-005-688983

후원금을 입금 후
에코캠퍼스 사무국으로 전화 주세요.



시민단체 상근자 장학사업

지난 16년간 환경재단은 시민단체 상근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시민사회의 장기적 비전을 위해 상근자의 대학원 진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명의 상근자가 동국대, 세종대, 한양대, KDI국제정책대학원의 석사 및 박사 과정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 2019년도 제휴 대학 리스트

동국대, 명지대, 서울여대, 세종대, 이화여대, 한양대, 서울과학종합대, KDI국제정책대학원, 원광대, 경상대, 한동대 (총 11개교 제휴)

환경재단은 2003년부터 시민단체 상근자에게 재교육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시민사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단체 상근자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문의: 02-2011-4311



총 장학생
10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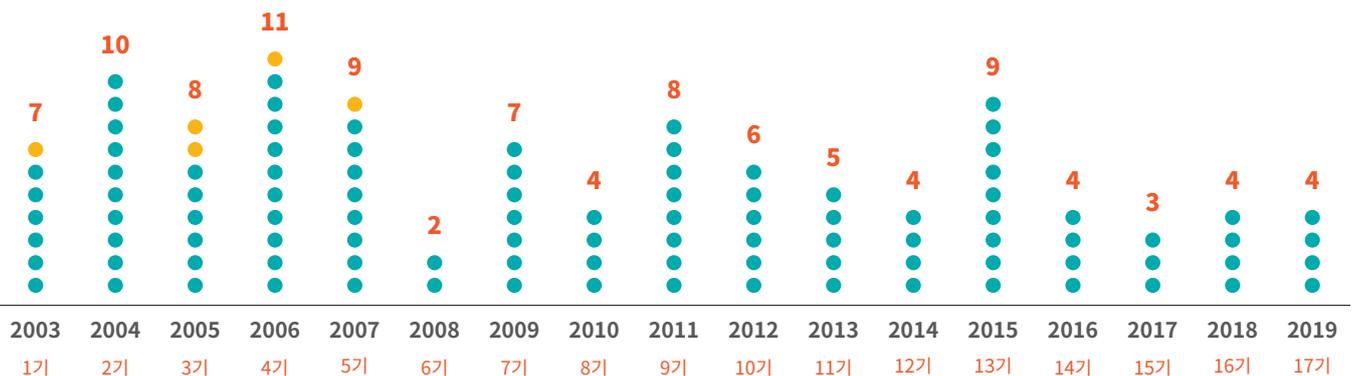
2020년도 18기 장학사업 모집 일정

- 지원내용** 제휴대학원 석,박사 과정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지원대상** 시민단체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시민단체 상근자 (단, 직능단체, 노동단체, 종교단체 및 복지단체 상근자 제외), 단체의 대표 제외
- 전형절차** 1차 서류접수, 2차 환경재단 장학위원회 면접 (제휴대학원 입학전형 합격 시 최종 장학생으로 확정)
- 지원일정** ① 신청서 접수 : 2020년 8월 중순~10월 초
② 면접 전형 : 2020년 10월 중순
③ 학교별 전형 참가 : 2020년 10월-12월
④ 최종 장학생 선정 및 수여식 2021년 1월 중
- 문의** scholar@greenfund.org / 02-2011-4311

*자세한 내용은 환경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역대 장학생 단위: 명

● 국내
● 해외



레이첼카슨홀 대관

2019년에는 10월까지 38개 환경·시민사회 단체에 무료 또는 할인으로 73회 대관하여 총 22,750,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레이첼카슨홀은 <침묵의 봄>을 통해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일깨운 저자의 이름을 딴 다목적 문화공간입니다.

총 지원금액
346,270,000 원

총 대관횟수
1,617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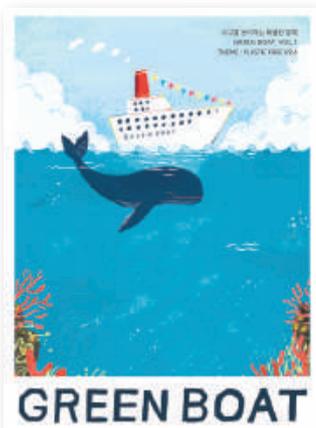
총 대관단체
349 개

대관신청절차



· 이메일
rachelcarson@greenfund.org

출판



GREEN BOAT MAGAZINE VOL 1.

13회 피스앤그린보트의 생생한 소식이 담긴 매거진입니다!

구입처
알라딘, YES24, 반디앤루니스,
인터파크, 교보문고



2030 ECO REPORT NO 4.

환경재단에서 연 1회 발행하는 환경 전문 무크지입니다. 청소년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정확하고 폭넓은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구입처
환경재단(02-2011-4378)

9.21 기후위기비상행동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라

환경재단은 환경·농민·인권·노동·종교 등 전국 시민사회단체 330여개로 구성된 ‘9·21 기후위기비상행동’ ‘전세계기후파업(Global Climate Strike)’ 집회의 참가단체로 함께 준비하고 행동했습니다. 시민 5천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여해 대학로에서 출발해 보신각으로 행진 후 다이 인(die in)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www.climate-strike.kr

· 기후위기비상행동 요구

1. 정부는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비상선언을 실시하라
2.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정의에 입각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라.
3.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독립적인 범국가 기구를 구성하라.



“우리나라가 공장을 짓고 석탄 화력발전소를 짓는 동안 남태평양의 섬나라는 물에 잠기고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태풍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됩니다. 저에게 편리한 생활을 보장해주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지구 반대편 어떤 이의 삶을 짓밟고 있다면, 저는 그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기후활동가 김도현



함께 해 주신 기업

POSCO

유한킴벌리

HYUNDAI

코오롱

SAMSUNG



BLACKYAK®

에스원

NH투자증권

SK이노베이션

농협미래경영연구소



롯데칠성음료

SK telecom

LG생활건강

AROMACO™

라이브치과병원

LIVE ORALS.

GS칼텍스

OCI



PARADISE

Coca-Cola®

삼성카드

SAMSUNG

SK E&S



고려아연주식회사
Korea Zinc Co.,Ltd.



SHINSUNG
E&G

SAMSUNG

삼성안전환경연구소

SH 서울주택도시공사

SK hynix

남
namam

이브자리
GOOD BEDDING

sejoong
세종여행

감사합니다



SINCE 2004
 시민과 함께 영화로 환경문제를 말하다

SEFF

서울환경영화제

Seoul Eco Film Festival

 www.seff.kr  [seff.kr](https://www.instagram.com/seff.kr)



우리, 친구해요!

1 환경재단 SNS에서 만나자!



환경재단에서는 그린리더 분들과의
오픈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다양한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FOLLOW하고, 가장 빠른 소식을
받아보세요!

휴대폰을 꺼내어

- ▶ 자주 사용하는 SNS 앱을 실행
- ▶ 검색창에서 <환경재단>을 검색
- ▶ FOLLOW!

2 환경재단 웹레터 구독하자!



환경재단 웹레터를 통해
재단의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 환경재단 활동 소식
- 환경 관련 각종 포럼, 공모전 소식
- 자원봉사자 모집
- 환경재단 채용정보
- 주목할 환경뉴스 클리핑

환경재단만의 특별한 사업에 관심이 있나요?

그린보트, 영화제, 어린이교육, 미세먼지 등
특별한 카테고리의 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환경재단 부서별 SNS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린보트



서울환경영화제



미세먼지센터



어린이환경센터



KOREA GREEN FOUNDATION

환경재단



환경재단과 함께하는 방법

후원문의 02 2011 4339, 4323

대표전화 02 2011 4300

팩스 02 725 4840

전자메일 greenfund@greenfund.org

웹사이트 www.greenfund.org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6 동화빌딩 3층 환경재단



환경재단의 푸른 발자취를 담은 <녹취록>은 친환경적인 재료와 방법으로 제작했습니다.

표지와 내지에는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종이를 사용했습니다.

FSC종이는 비영리 국제NGO단체인 산림관리협의회에서 인증한 지속가능한 조림 활동으로 생산된 목재로 만들어집니다. 또한 인쇄 시 종이 유실분이 적게 발생하는 판형으로 환경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공기를 잉크를 사용하였습니다. 책의 수명이 다한 뒤에는 재활용이 쉽도록 스테이플로 제본을 하고 비닐코팅과 후가공은 하지 않았습니다.